



이강하미술관 '미스터 노바디' 작품

마을공연·공예체험 문화피서 떠나볼까

문화가 있는 날

담양서 등불만들기·의상체험 '나해석' 다룬 연극 '양림살롱'

25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무더위를 피해 공연, 전시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문화행사를 즐겨보자.

대담미술관(광장 정희남)에서는 '하늘엔 오작교 담양엔 오죽교'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다문화공동체를 이어줄 교류활동으로 전통문화공연 및 체험을 통해 다름을 잇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이 직접 소개하는 마을미술해설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박세연 명창의 공연, 등불만들기 체험, 전통놀이·전통의상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담양의 색을 담다·정명숙' 전도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 문의 062-381-0082.

광주시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열리는 '1930양림살롱'은 뮤지엄토크프로그램인 '미스터 노바디 살롱'을 준비했다. '미스터 노바디 살롱'은 사전에 선정된 클럽원들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나누는 퍼포먼스형 토크프로그램이다. 7월의 살롱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1930년 광주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도 인기다. 총 4개의 유니버스극이 '한희원미술관', '유희매문화관', '호랑가시야트폴리곤'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달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세계일주를 했던 여성, 이혼고백장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실존인물 '나해석'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문의 070-4239-5040.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7월 '필름정거장'은 'Colorful Tour'라는 주제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영화 여행을 떠난다. 미국 LA를 배경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

는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상영되며, 필름정거장이 익숙지 않은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 순회프로그램 '필름투어'와 추억이 담긴 VHS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주는 '일기장 - 당신의 비디오'도 진행된다.

영화 포스터 속으로 들어가 보는 '크로마키 포토존', 비디오 아카이브 전시 '비디오보물섬',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필름영화방'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필름정거장 '극장전'에서는 경쾌한 음악으로 필름정거장의 문을 열어줄 '철이와 훈이', 관객과 함께하는 컬러풀한 '커뮤니티 댄스'와 'KIA챌린지 어린이뮤지컬단'의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366-1895.

근대역사문화마을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온 '순수'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오케스트라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올해 두 번째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과 함께 미국 무성 코미디 영화의 3대 거장인 해롤드 로이드의 대표작 '안전불감증' (1923년)을 상영한다. 영화는 1922년 시골 청년 해롤드가 사랑하는 약혼녀를 두고 오직 성공을 꿈꾸며 도시로 떠나는 내용이다. 드림 김훈, 피아노 김다인으로 구성된 무성영화 전문 밴드 S.O.M이 무대에 올라 공연도 선보인다. 문의 062-651-0972.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7월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프로그램으로 빛고을페스티벌 앙상블의 'Serenade and Waltz' 공연을 선보인다.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시벨리우스의 '발스 트리스테',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제13번' 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무지크 K.525-4개 악장 등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곡해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문종아, 채송화, 김민수, 강윤숙, 양신애, 윤한나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데올로기 밀실 넘어 현대문학 광장 열었다

타계한 최인훈의 문학세계 함복 출생 한국전쟁 때 월남 60년 발표 '광장' 분단문학 지평 암투병중에도 창작 '한국문학 거목'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중립국." (소설 '광장' 중)

23일 세상을 떠난 작가 최인훈(1934~)의 기념 비석 소설 '광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수많은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개인의 자유(밀실)와 집단적 가치(광장)라는 양극단의 사회상을 회의한 주인공 '이명준'은 한국전쟁 중 포로로 잡힌 뒤 어느 이데올로기도 지배하지 않는 중립국을 택한다.

이 소설은 남-북 간의 이념-체제에 냉철한 균형 감각을 견지하면서 치열한 성찰을 보여주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천착하는 결말도 당대 독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또 삶의 일회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 인간 자유의 문제와 사랑과 같은 본질을 다뤄 세월이 흘러도 젊은이들에게 늘 추앙받았다. 특히 소설의 열린 구조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무수한 비평가와 독자들을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최인훈 작가는 문학에만 몰두한 그의 삶 자체가 한국 현대문학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정도로 한국문학의 거목(巨木)이었다.

에세이들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문학의 테두리를 확장했다. 그의 문학 세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낯지 않은 문제의식과 세련된 양식의 전범으로 평가 받는다.

문학계는 그를 "근대성에 대한 관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새로운 형식의 탐구를 바탕으로 신이 죽은 시대, 신화가 사라진 시대에 신비주의와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방법론으로 개발한 내면성 탐구의 절정에 선 작가", "문학작품을 썼다기보다 차라리 '문학을 살았다'라는 표현에 적절한 작가"로 평한다.

그가 4·19 이후 1960년대 벽두에 발표한 '광장'은 당대 지식인과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고,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히 읽히며 후배 문인과 젊은 독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소설은 출간 이후 현재까지 통째로 204쇄를 찍었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최다 수록 작품이라는 기록도 있다. 2004년 국내 문인들(시인·소설가·대학교수·평론가 등)이 뽑은 '한국 최고의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장'은 완역을 추구하는 작가가 스스로 수차례 다듬고 개작해 한국문학사상 가장 많은 판본을 지

닌 작품으로 알려졌다. 작가는 1961년판 서문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밀실로부터 광장으로 나오는 골목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 온다"고 설명했다.

'광장' 이후에도 그는 인간과 시대를 통찰하는 많은 작품을 썼다.

전망이 닫힌 시대의 존재론적 고뇌를 그린 '회색인',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파격적 서사 실험을 보인 '서유기', 신식민주의 현실의 위기의식을 풍자소설의 기법으로 표현한 '총독의 소리' 연작, 20세기 자체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으며 동시대인의 운명을 큰 시각에서 조망한 대작 '화두'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003년 계간지에 발표한 단편 '바다의 편지'를 끝으로 새 작품을 내지는 않았다. 2008년 기자들에게 "한 권 분량의 새 작품을 낼 만한 원고 갖고 있다"며 "말로 무언가를 적는 것이 마음대로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실험한, 심미적이면서도 전위적인 작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자신의 희곡 작품을 올린 연극 공연을 보러와 관객과 만난 자리에서는 "창작하는 사람들에겐 은퇴란 없다.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해 식지 않는 창작열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연히 찾아온 암을 이기지 못하고 신작을 세상에 내보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 /연합뉴스

'주52시간 근로와 워라밸' 광주여성재단 내일 워크숍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25일 오후 3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주52시간근로와 워라밸'이라는 주제로 제5차 성평등 정책 현안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7월부터 시행돼 다양한 이슈와 새로운 문화들을 양상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유와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위한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련됐다.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도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각 분야별로 논의 하고 장시간 노동문화를 지양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워크숍은 이화경 소설가의 사회로 시작하며 취지의 노무사의 주제발표 및 장연주(광주시의회

의원), 김동리(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배문자(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수석부회장), 주경미(광산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김신희(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춘희(광주북구인력개발센터 관장), 황인자(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전진희(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 염미봉(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062-670-0536.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